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힘 모으자”

4월 소통의 날 행사 ... 김관영 도지사, 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특례발굴 노고 격려·송창근 KMK 회장 특강 진행

김관영 도지사가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경성의 자세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4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명사특강에 초청된 송창근 KMK 글로벌 스포츠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 반드시 꼭 성공을 해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처리를 하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특별 초청된 송창근 KMK 글로벌 스포츠 회장이 ‘착한 리더가 성공한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송 회장은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연 매출 4억5,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글로벌

별 신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은 곧 사람’이라고 여기는 HTM(Human Touch Management) 경영철학에 있다.”며 “기업가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투자한 종업원, 즉 ‘사람’이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 마인드이다.”고 말했다.

면 챔피언도 단 한방에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리더의 자세를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개최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전직원이 도전정신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이임식이 열렸다.

“새 역사 만들어갈 전북의 성공 확신”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임사 통해

전북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조봉업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도지사와 도실·국·원 간부공무원 및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영상 시청, 공로패 수여, 송별사, 이임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봉업 부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행정부지사로 부임 당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젊고 혁신적인 도지사님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민선 8기 힘찬 도약을 응원했다.

또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등 지난 1년 8개월의 임기를 돌아보며 특별한 전북시대 개막을 위해 이뤄낸 성과에 대한 보람과 공직자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도정을 떠나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전북의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도, 새로운 전북 함께 만들 도민감사관 위촉

도민감사관 13개 분야 56명 · 2년간 도정 청렴 파수꾼 역할

도민 불편사항 등 개선방안 제시로 도정발전 디딤돌 기대

전북도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도정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제6기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회계, 건축, 보건, 환경, 문화

예술 등 13개 분야 56명의 전문가들로 선정됐으며, 4월부터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감사관은 도민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등을 신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위촉식에 이어 2023년 도민감사관 운영계획 설명과 더불어 도민 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민감사관들은 지역 일선현장에서 평소 체감하고 있던 불편사항을 비롯해 지역현안 사업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걸맞은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바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때일 수록 청렴과 상식 등 기본 원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청렴이바로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만큼 도민감사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아동학대 대응인력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에서 아동학대 대응인력 소진예방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과와 정책 시행 후,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무 소진 예방과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전북지역 아동학대 대응인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이 88명,

학대예방경찰관(APO) 1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96명이다. 이날 워크숍은 2023 오은영의 더할나위 없이 토크 콘서트 관람 후 각 지역별 참석자들끼리 모여 업무 애로와 협조사항을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김 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대응업무는 스트레스가 크다”며, “이번 워크숍이 위로와 에너지 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도는 아동보호체계를 촘촘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민연금·별정우체국연금공단, 맞손

노후준비 종합포털을 4분기부터 별정우체국연금 조회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사장 정진용)과 ‘공·사연금 통합조회 및 노후준비 서비스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협약으로 공단 운영 중인 노후준비 종합포털(http://csnps.or.kr)에서 올해 4분기부터 별정우체국연금도 조회가 가능해졌다.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는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은 물론 주택·퇴직·개인연금까지 조회할 수 있지만, 별정우

체국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은 조회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을 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별정우체국연금 정보 연계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담·교육서비스 협력, 콘텐츠 교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아기자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내달 19일까지 신청

전북도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하는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에서 메이커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3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는 도내 메이커의 아이디어 발굴과 제품 컨셉 구체화 지원을 위해,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뚝딱365에서 운영하는 경진대회이다. 대회 주제는 ‘제조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제작’이며, 전라북도 주축산업(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과 미래신산업(수소, 이차전

지)분야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품의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회 신청은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인 이하의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서류평가를 통해 7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7팀을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보유 장비 및 공간 △시제품 제작 재료비 △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되며, 제작된 시제품의 최종 평가를 통해 순위별 우수시제품 시상식을 진행한다. 참가자 모집은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홈페이지(www.maker365.kr) 또는 전화문의(063-219-359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